



“설비업, 주택설비에 대한 엔터테인먼트 돼야”



장중항 전주완산분회장(사진 가운데)

이번 4월호에서는 최근에 설비인력공사를 개업하여 침체되어 있는 설비업계의 발전을 위해 암중모색 하고 있는 장중항 전주완산분회장을 인터뷰했다.

-난방 시공업 발전을 위해 설비인력공사를 개업 하게 된 동기와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회원들의 설비업이 위축되어있는 상황에서 설비인력공사를 개업하여 설비인력 알선과 분회차원에서 공사를 수주하여 회원들에게 일거리 창출과 새로운 회원확충 및 복리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회장님이 하고 있는 설비업을 소개해주세요.

93년부터 만능수리 건축설비를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부분에 전반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협회와 관계를 맺게 된 시기와 동기에 대해서 말씀 하주세요.

93년경에 최병희 부회장의 권유로 입회하게 되었으며 처음에는 정보수습 차원에서 월례회의에 참석하는 정도였으나 차츰 협회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분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먼저 난방 시공업이 침체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반성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 오게 된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니까요 회원들은 협회에 가입하면 일도 주고 무엇을 해주길 원하는데 그보다는 협회를 통해서 스스로 업역을 창출해 나가야 됩니다. 특히 분회에서는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주기위해 노력하고 회원각자가 터득한 노하우를 월례 회의때 토론장을 통해 회원 스스로 자질 향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 경기 불황과 무등록업체등 지역현안의 문제점에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모든 일은 본인이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력을 쌓고 성실히 소비자에게 신용을 쌓아 간다면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무등록업체들도 단속보다는 제도권(협회)에 흡수 시켜야합니다. 너무 늦었다 생각하지말고 늦었다 생각됐을 때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이대로 가면 단순노무직으로 전락하게됩니다. 이미 전락했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 협회,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 마디를 부탁드립니다.

신축건물 준 공시에 배수설비 준공서류를 빌려서라도 제출하는데 잠자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난방 시공업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제도가 필요한데 협회에서 법령 개정 등의 노력을 신속하게 해주길 요구합니다.

돈을 벌기위해서는 남보다 앞서 나가야겠지요. 그러기위해서는 정보에 밝아야 되고 눈앞

의 이익에 연연하지 말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다 같이 잘사는 설비 인이 되자고 합니다.